

전주시, 추석 연휴 ‘청소종합대책’ 가동

추석맞이 청결주간·청소상황실 운영·합동 일제 대청소 등 실시

전주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쾌적한 도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맞이 청소종합대책을 가동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7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청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명절 전후로 청소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22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를 ‘추석맞이 청결주간’으로 정하고, 불법 폐기물 등 쓰레기가 적치된 취약지의 쓰레기를 말끔히 정리하기로 했다. 또한 동별 취약지에 대해서는 공무

원과 자생단체, 일반시민 등이 합동으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제 대청소는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전주를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와 생활 쓰레기 감량 등 시민들의 상숙한 생활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어 오는 10월 3일부터 이어지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생활 쓰레기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각각 청소상황실을 운영하고, 직영 및 대행업체별로도 자체

기동처리반도 가동한다. 동시에 직영구역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3~4일, 7~9일 등 5일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을 실시하고, 대행구역의 경우 10월 3~4일, 7~8일 등 4일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을 실시해 연휴 기간 다량 배출되는 쓰레기 수거 및 각종 청소 민원을 해결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직영구역(6일)과 대행구역(6일, 9일)의 쓰레기 수거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사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전주시 누리집 등을 통해 쓰레기 수거 휴무일을 알려 가급적

쓰레기 배출을 자제하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전주한옥마을과 서부신시가지, 고사동 영화의 거리 등 유동인구와 방문객이 많은 7곳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하고, 연휴 기간 및 쓰레기 수거 휴무일에도 가로 청소 등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복지국장은 “추석 명절 기간 차질 없는 생활폐기물 수거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께서도 음식물 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해 주시고, 쓰레기 배출 시간 준수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국내 최대 영화음향 전문기업인 라이브톤은 19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허전 진흥원장, 최태영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플랫폼 서비스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최대 영화음향 전문기업과 맞손

전주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라이브톤, 협약 체결

영화의 도시 전주시가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유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 최대 영화음향 전문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 이하 진흥원), 국내 최대 영화음향 전문기업인 라이브톤(대표 최태영)은 19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허전 진흥원장, 최태영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플랫폼(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 서비스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산업 발전 전략 공동 수립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한국형 영화 유통시스템 이용 확산을 위한 공동 지원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기반 국내·외 영화산업 지원 상호 협력 △협력기관 상호 홍보 및 대내외 협업 체계를 통한 위상 강화 등 6가지 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플랫폼(k-soundlibrary.kr)을 고도화해 지

난 7월 민간 음원을 유통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는 국내 창작자 및 제작자가 만든 음원을 손쉽게 플랫폼에 업로드할 경우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영화 제작에 활용될 수 있는 민간거래 플랫폼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고도화된 시스템은 민간음원 등록 시 UCS(Universal Category System)를 적용해 국제 음원카테고리 시스템 규격을 준용하도록 개발됐다. 이를 통해 시는 국내 음원이 세계 음원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문화강국 구현과 K-콘텐츠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협약에 참여한 라이브톤은 국내 최대 영화음향 전문기업으로, △살인의 추억 △왕의 남자 △괴물 △추격자 △택시운전사 △신과 함께 등 14편의 1000만 관객 영화 작품과 330편의 드라마 사운드 디자인 미상을 전담 제작한 기업이다. 특히 '기생충' 등 봉준호 감독의 모든 전체 영화 작품과 사운드 작업에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10월부터 LED 전자게시대 시범운영

자영업자·소상공인도 합법적인 광고 집행할 수 있어

전주시는 지역 자영업자의 판로 확대 및 합법적인 광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LED 전자게시대 시범운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완산구 통일광장 사거리에 LED 전자게시대 1기를 설치해 공공광고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왔으며, 지난 6월 덕진구 화개네거리에 1기의 게시대를 추가 설치했다. 시는 새롭게 설치된 LED 전자게시대를 활용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공공광고에 이어 상업용 광고까지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을 대 상으로 무료로 운영되던 공공광고뿐만 아니라, 전주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3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이번 시범운영 확대와 발 맞춰 온라인 관리시스템과 전용 누리집을 구축해 광고 신청부터 추천·배정·송출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화할 계획이다.

이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신청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시는 이번 LED 전자게시대 시범운영 확대를 통해 불법 광고물 난립을 줄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에게 부담 없는 광고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전자게시대 시범운영 확대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광고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불법 광고물 정비와 도시미관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옥외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전주드론축구월드컵’ 막바지 준비 한창

운동목 부시장 등 관계자들 전주월드컵경기장 현장 점검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FIFA World Cup Jeonju 2025) 현장을 찾는 해외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19일 이번 드론축구월드컵의 주 무대인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운동목 부시장과 관련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관련 시설 등 준비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단은 △개막식·시상식 무대 △드론축구(Class40, Class20) 경기장 △선수단 정비 공간 △선수단 전용 식



전주시는 지난 19일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의 주 무대인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운동목 부시장과 관련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관련 시설 등 준비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당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 등 대회 주요 공간을 돌아보며 준비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또한 △대형물(TFS텐트) △안내 표지판 △체합부스 △문화예술 공연 무대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 공간과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관람객 이동 동선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폈다. 시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발견된 행사장의 미비점을 보완해 대회 전까지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번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은 전 세계 33개국 290개 팀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드론축구 대회로, 국가대표전과 클럽대항전 등 본격기를 비롯해 크래시, 슈퍼파일럿 선بال 대회 등 시범종목도 운영돼 드론 스포츠의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드론축구월드컵에서는 드론 경기뿐만 아니라 전주시 문화예술공연과 시민 체험프로그램, 2025 Buy전주 GOGO페스티벌, 전주한깨장터, 드론산업 국제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개최돼 전주를 찾는 선수단과 관람객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